

교회안의 교회

야고보서 5:13-20

¹³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¹⁴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하십시오.¹⁵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¹⁶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¹⁷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¹⁸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에서 곡식이 자랐습니다.¹⁹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누가 그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면²⁰ 그는 죽을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영혼을 빚어 가실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새로운 삶입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는 십일조에 대해 다루었고, 지난주에는 주일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예배와 찬양 집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하지만, 예배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임들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며, 특별히 주일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적 형성 시리즈의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교회 안의 교회(**A Church in a Church**)”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화면에 여러 가지 기도제목들 띄워 놓습니다. 그 기도제목 가운데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포함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건강, 즉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영적 건강입니다.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건강 문제와 질병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하나의 질병을 다른 질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강상의 문제이든, 내가 직접 그것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허혈성 심장질환(**ischemic heart disease**)입니다. 이것은 동맥이 딱딱해지면서 심장이 받아야 할 만큼의 혈액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은 뇌졸중(**stroke**)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OPD, 즉 만성폐쇄성폐질환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혼잡해지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는 질환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환에는 식습관에서부터 운동 부족, 환경오염, 유전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뿐 아니라 모든 질병에 걸쳐 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loneliness**)입니다. WHO에 따르면 외로움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29% 증가시키고, 뇌졸중의 위험을 32% 증가시키며, 또한 외로움은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촉발하여 COPD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외로움 자체가 실제 질병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외로움은 말 그대로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외롭지 않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소속감이 있고, 여러분을 지지해 주는 공동체나 친구들의 모임이 있다면, 실제로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진실한 우정, 그리고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웃음과

눈물을 나누는 것에는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유익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모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otherworldly**), 생명을 주는(**life-giving**)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소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 모임은 단순히 친구들이 모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서로를 알아가는 모임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것, 즉 영적인 것이 될 것이며, 생명을 주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 안의 교회(**A Church in a Church**)”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의 교회가 단순한 모임을 넘어 영적이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1.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13-14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소그룹 모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중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게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으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전과 후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소그룹을 세워갈 기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그룹 리더들도 그렇게 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그룹 안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룹 안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저를 시작으로 **BVC**의 리더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목자가 된다는 것, 즉 영적인 목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갈 때, 우리의 소그룹도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각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는 남성과 여성, 즉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그의 편지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기도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때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성경의 한 권 전체인 시편은 기도들을 모아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2.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왜 야고보는 갑자기 여기에 엘리야에 관한 이 짧은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엘리야도 여러분과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에게 이것은 아마도 터무니없게 들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야고보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엘리야가 기도했던 가뭄에 대해 간단히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금요기도회(FNP)에 참석하셨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7:1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합과 대면합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엘리야는 그의 악한 행위 때문에 가뭄이 찾아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후 엘리야는 그릇 시냇가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주어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마르자 한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그렇게 신실하게 엘리야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이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대결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제물을 태우심으로써 엘리야는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불러 올라갑니다. 엘리야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놀랍고도 우리를 세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가뭄에 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방 안의 코끼리(the elephant in the room), 즉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않는 매우 큰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아주 큰 코끼리입니다. 가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야 자신이 가뭄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까? 설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했다고 공로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을 내리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어 있던 사람이었으며, 선지자로서 그의 유일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섰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야고보가 말하는 이 평범한 사람 엘리야는 가뭄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 기도에는 날씨를 바꿀 만큼의 능력이 있고, 세상이 치유될 수 없다고 말하는 형제자매를 치유하며, 심지어 우주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나,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편지를 읽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알겠어. 기도가 강력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고, 기도가 세상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겠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잖아!” “야고보, 당신이 아무리 엘리야가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엘리야는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것을 본 적도 없어.”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항상 행하고 계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습니까? “그런 기적적인 일은 나에게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 또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혹은 솔직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도, 자신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blind spots**)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삶을 나누는 형제자매들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한 말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제목을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흔적을 함께 찾아보는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 믿음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는 결국,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기도의 용사들(**prayer warriors**)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기적적인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서로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함께(**TOGETHER**)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로서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 안의 교회” 즉, 소그룹 안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웃음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정말 놀라우면서도 우리의 기존 생각을 뒤집어 놓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3. 기도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15-16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19-20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의 기도와 소그룹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일으키다(raise)”라는 의미로 헬라어 ****에게레이(egerei, ἐγερει)****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일으키다, 깨우다, 깨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질병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죄의 용서와 연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질병은 단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경험해 온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은 또한 우리를 붙잡아 포로로 만드는 삶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가는 그 사이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믿음은 전복적(subversive)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전복적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삶의 장애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나고(egerei),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질병과 장애물과 넘어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보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과 우리의 기도가 전복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 명상의 개념, 즉 자기계발, 삶의 발전과 성공 등을 추구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중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값없이 완전하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의 교회(A Church in a Church)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서로의 목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와 함께 걸어가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서로에 관한 기도 일지를 기록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도 외롭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가족과 친구들은 실제로 질병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의 질병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Bridge of the Valley**가 함께 기도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Young**의 소그룹 경험에 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증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누는 웃음, 함께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평생의 우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소그룹을 통해 경험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원천은 자신의 소그룹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목자이며, 여러분 역시 각자의 소그룹 안에서 목회자이며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와 기름부으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통해 의미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넘쳐흐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흐를 때, 그 사랑을 서로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세워지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BVC**의 소그룹으로 처음 모이고 그 모임을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가족의 목자가 되라는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